

CJ제일제당 조미료 원료 '핵산' 8년 연속 1위 글로벌 '그린바이오' 넘버원 속도

CJ제일제당이 세계 최대 규모 핵산 시장인 중국을 제패하고 글로벌 No.1 그린바이오 기업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연간 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글로벌 핵산 시장의 약 2/3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1위 공급자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도 60% 이상의 시장점유율(생산량 기준)로 명실공히 1위에 올라섰다.

CJ제일제당은 중국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지난해 연간 핵산 전체 판매량이 약 20% 가량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약 20% 가량 늘었다고 2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1977년 처음으로 핵산을 생산·출시한 이래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왔다. 현재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총 세 곳의 글로벌 핵산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두 곳이 중국 랴오청(요성)과 셴양(심양)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핵산(核酸/Nucleotide)은 음식의 맛을 살려주고 감칠맛을 높여주는 조미소재로, 조미료, 간장, 소스류, 다양한 가공식품에서 감칠맛을 더해주는 핵심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글로벌 그린바이오 시장에 속하는 다양한 품목중에서 라이신이 나 트립토판 같은 사료용 아미노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으나, 최근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효자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핵산 시장 1위에 오른 데에는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로 확보한 고도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기



CJ제일제당 바이오 중국유통법인 전경. /CJ제일제당

**세계 최대 핵산시장 중국도 제패
판매량 급증·글로벌 점유율 60%
맞춤형 솔루션·품질 경쟁력 주효**

반으로 품질과 원가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중국 핵산 시장에서 CJ제일제당의 핵산제품은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뿐 아니라 기업간 거래(B2B)가 대부분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다. 핵산 제품만을 제공하는 '제품 마케팅'에 주력하는 중국내 다른 핵산업체들과 달리, 현지 고객사가 원하는 핵산 제품뿐 아니라 제품에 맞는 사용법, 레시피 등을 함께 제공하는 '기술 마케팅'을 통해 수요와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글로벌 핵산 시장 1위 기업이 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고객이 원하는 품질수준보다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초격차 기술경쟁력"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핵산 사업이 CJ제일제당이 글로벌 No.1 바이오 기업이 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의 경기 회복과 함께 현지 식품산업이 대형화·고도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핵심원료인 핵산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대형 식품업체들의 핵산 수요 증가로 과거 가격중심의 시장에서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역량이 중요한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글로벌 핵산 최대 공급사인 CJ제일제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CJ제일제당은 이 같은 시장 변화에 발맞춰 앞으로도 생산 기반 확대와 원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장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셀트리온 '렘시마' 美 시장 안착 1분기 매출 591억... 224%증가

1년 새 분기 매출 3.2배 늘어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렘시마'가 올해 1분기 미국에서 5500만달러(한화 약 59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 화이자는 실적 발표를 통해 렘시마(미국 판매명 인플렉트라)의 미국 내 매출액이 55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4% 증가했다고 밝혔다. 1년 새 분기 매출이 3.2배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렘시마는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질환 등 자가면역질환에 쓰는 안센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다. 미국에서는 화이자가 '인플렉트라'라는 이름으로 2016년 11월부터 판매 중이다.

렘시마는 2016년 400만달러에 불과하던 매출은 지난해 1억1천800만달러까지 늘어났고, 올해는 1분기에만 지난해 연간 매출의 절반에 달하는 실적을 내는 등



순항하고 있다.

화이자의 EH(Essential Health)부문 매출액은 50억7700만 달러(약 5조4500억원)로 전년 대비 5% 하락했지만, 렘시마 등 바이오시밀러 실적은 성장했다.

또한 렘시마가 미국에서 선전하면서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존슨앤드존슨(J&J)은 레미케이드의 올해 1분기 미국 매출액이 9억1600만 달러(약 98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5% 감소했다고 밝혔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제넥신, 로슈와 면역항암제 공동개발

제넥신과 미국 관계사 네오이뮤네틱은 글로벌 제약기업 로슈와 병용투여 방식의 면역항암제를 공동개발한다고 2일 밝혔다.

임상은 흑색종, 머켈세포암, 피부편평 세포암과 같은 고위험 진행성 피부암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미국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네오이뮤네틱과 미국 면역항암 네트워크인 ION(Immune Oncology Network)이 공동으로 이끄는 임상 제1b/2a상에서는 하이루킨-7과 로슈의 면역관문억제제인 테센트릭(Tecentriq)의 병용투여 효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제넥신에 따르면 하이루킨-7은 면역세포 성장 및 활성화 물질 '인터루킨-7'(IL-7)을 기반으로 개발된 면역항암제로, 암과 싸우는 면역세포인 T세포의 증식과 활성을 돕는다. 로슈의 테센트릭은 암세포의 면역반응 회피 신호를 억제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 면역관문억제제다.

ION은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북미 유수의 암 센터 및 대학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로서 첨단 면역항암치료제 개발을 위한 다기관 임상시험을 수행한다. /유재희 기자

'2018 KICOX 글로벌 선도기업' 휴온스-휴메딕스 선정

휴온스글로벌의 자회사 휴온스와 휴메딕스가 '2018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 글로벌 선도기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KICOX 글로벌 선도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글로벌 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우수 기업을 매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휴온스는 충북 제천바이오밸리 내에 위치한 cGMP급 최첨단 공장 설비와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각종 질병에 대한 전문의약품 생산하며 국내 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평균 7% 이상의 R&D 투자를 통해 우수 의약품을 개발하고, 점안제, 국소마취제, 웰빙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바이오 등 다양한 제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등 성장 가능성을 보였다.

특히, 보툴리눔 독소 '휴톡스'를 필두로 해외 수출 확대 및 신규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며 얻은 가시적인 성과 또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휴메딕스는 지난해 제천바이오밸리 내에 cGMP급의 '휴메딕스 제2공장'을 준공 하면서 바이알, 앰플, 프리필드 등 주사제 전 제형을 커버할 수 있는 최첨단 설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휴온스와 휴메딕스는 선정됨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맞춤형 기업성장 패키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유재희 기자

"흔한 속병 위염, 방치했다간 병 키운다"

심기남 이대목동병원 교수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며, 급하게 먹는 문화 때문인지 우리나라 사람은 소화기계통의 질환을 흔히 앓는 편이다. 국민 5명 중 1명이 소화계통 질환을 경험했는데, 이 중 가장 흔한 것이 위염이다.

위에 염증이 생긴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진단과 치료가 비교적 간단한 급성 위염은 헬리코박터균에 처음 감염되거나 그 외에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에 감염됐을 때 생길 수 있다. 또한 진통소염제 등의 약물, 알코올 복용, 심한 화상이나 외상, 수술 등의 스트레스도 원인으로 작용한다. 급성 위염이 생기면 보통 복통, 소화불량, 구토, 트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만성 위염은 급성 위염과 달리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지속해서 작용해 증상이 나타난다.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약물, 흡연, 반복적인 알코올 섭취,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담즙이 역류하는 경우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위염을 불러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심기남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사진)는 "위염이 만성화되면 증상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지만, 위장 점막에는 감각 신경이 없어서 심한 염증이 있어도 직접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



을 수도 있다"며 "소화불량, 복부의 불편함과 팽만감, 명치 부위 통증, 식욕 부진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데 양상이 다양

해 환자 스스로 위염을 정의하기 쉽지 않으므로, 평소 위 건강에 관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위염을 진단받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특별한 증상 없이 내시경 검사로 우연히 만성 위염을 발견한다면 대부분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환자가 특정 증상을 호소한다면, 증상에 대한 치료를 우선 시도한다. 증상이 없다고 무조건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다. 위염은 전체 암 중 발생률 1위를 기록하며 발병 위험이 높으므로 내시경 검사로 위염을 분류하고, 염증의 정도와 원인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식습관 개선은 예방과 치료 모두에서 중요하다. 신선한 채소의 섭취를 늘리고, 구운 고기보다는 삶은 고기, 신선한 음식을 먹는 것도 방법이다. 만성 위염은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함도 잊지 말아야 한다. 위염의 원인균으로 널리 알려진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는 것은 환자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어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 /박인용 기자

JW중외제약 의약품 R&D에 AI 활용나서

신테카바이오와 AI 신약개발 MOU



JW중외제약이 인공지능 솔루션을 활용해 R&D 경쟁력을 강화한다.

JW중외제약은 신테카바이오와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연구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JW중외제약은 신테카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유전체

맵 플랫폼(PMAP)'의 약물 반응성 예측 기술을 활용해 신약 후보물질의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등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한 재생의학 분야와 개발·판매 중인 의약품 적응증 확장 연구에도 신테카바이오의 플랫폼 기술을 적용할 방침이다. /유재희 기자

동아제약 어린이감기약 '챔프 노즈 시럽' 출시

동아제약은 어린이 감기약 '챔프 노즈 시럽'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챔프 노즈 시럽은 슈도 에페드린염산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성분으로 구성되었으며 콧물과 코막힘, 재채기 등을 완화한다.

특히 챔프 노즈는 5ml씩 1회용 스틱 파우치 형태로 소량 포장돼 있어 복용이 편리하고 휴대가 간편하다. 가령 나이가 만 5세이고 체중이 20kg인 아이라면 1회 복용 시 별도의 투약 도구(계량컵, 스푼) 없이 5ml 한 포를 먹으면 된다. /유재희 기자



또한 어린이 감기약 챔프 노즈는 색소와 보존제를 넣지 않았고, 의약품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 안전 포장을 적용했다. 보호자가 직접 가위 등을 이용해 개봉해야만 복용할 수 있다.

챔프 노즈는 만 2세부터 복용 가능하며,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유재희 기자